



YAMAHA
Make Waves

야마하 가이드

어쿠스틱 기타 선택



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하는 이 선택 과정이 더 쉽고 덜 부담스러워지도록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악기의 실제 용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연주자나 리더이십니까? 단순히 기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기타의 용도를 정하면 선택의 폭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하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쿠스틱 및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라인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타를 선택하십시오.

시작하기

어쿠스틱 기타를 구매하기 전에 고려하거나 알아야 할 네 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 목적 및 예산
- 연주 수준 — 초급에서 고급까지
- 구조 및 디자인
- 스타일 및 사운드

목적 및 예산

어떤 기타를 원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용도와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고려하십시오.

어쿠스틱 기타의 가치는 구조, 목재, 생산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제작된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은 수입 기타의 품질이 좋아 초보자가 구매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기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하는 현재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야마하 커스텀 샵을 포함하여 전 세계 4개 공장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제조하고 있으며, 모든 기타는 야마하 직원이 제조합니다.

목재 선택은 기타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배송품을 수령할 때 톤우드용 목재를 따로 “엄선”해 두었다가 이를 사용하여 한정판 악기를 제작합니다. 아마하 장인들은 만드는 모든 기타에 사용할 목재를 직접 선택합니다. 목재의 희귀성, 피겨링이나 디테일의 양, 심지어 마감 스타일까지도 악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저가 기타의 상판은 단판이 아닌 목재 여러 겹을 붙인 합판으로 제작됩니다. 합판 목재는 솔리드 상판과 같은 음색 특성이나 진동을 보유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주자들은 기후와 온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합판을 선호하며, 최종 규모와 필요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고운 톤을 내기에 괜찮다고 여깁니다. 아마하는 단판으로 낼 수 있는 우수한 톤 품질을 구현하도록 모든 입문자 수준 [FG 및 FS 시리즈](#) 기타는 물론 모든 [A 시리즈](#) 어쿠스틱/일렉트릭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Sitka Spruce) 상판을 사용해 어쿠스틱 기타를 제작합니다.

꼭 거금을 들이지 않아도 멋진 톤과 뛰어난 연주감을 갖춘 어쿠스틱 기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마하의 어쿠스틱 및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중 다수의 가격대가 200~400달러입니다. 빠른 예산을 가진 초보자를 위해 야마하는 기타, 스트랩, 여분의 스트링, 튜너 등 연주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어쿠스틱 기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연주 수준 – 초급 또는 고급

초보자라면 고급 어쿠스틱 기타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제조 기술과 “수직적 통합” 덕분에, 3,000달러의 최고급 야마하 기타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기술이 더 저렴한 악기에도 적용됩니다. 야마하는 모든 연주 수준에 맞는 양질의 악기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듦새와 사운드가 탁월한 어쿠스틱 기타 제품을 방대하게 제공합니다.

더 좋은 고급 기타로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된 숙련된 연주자이시라면, 다양한 톤우드의 차이점과 이러한 차이가 악기의 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조 및 디자인

어쿠스틱 기타의 디자인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면, 시각적, 청각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넥

어쿠스틱 기타의 넥은 기타 바디에 결합되며 끝부분에는 헤드스톡이 있습니다. 프렛보드는 넥 상판에 장착되어 있으며, 프렛보드 뒷면은 연주자가 지판을 짚는 손모양에 맞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야마하는 볼트로 고정하는 대신 기타의 바디에 넥을 접착하는 “세트넥” 구조를 사용하며, 이는 일렉트릭 기타에 더 흔히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힐은 기타의 넥이 바디와 만나는 부위 뒤쪽에서 지지력을 더해줍니다.

넥 부분에는 금속 트러스 로드(Truss Rod)가 있어 스트링 장력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휘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트러스 로드(Truss Rod)는 헤드스톡 또는 넥 아래 부분에서 기타 바디 안쪽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 로드(Truss Rod)를 조정하면 인토네이션 문제를 교정하여 악기 튜닝이 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마하 [L 시리즈](#) 어쿠스틱 기타는 튜닝 안정성과 톤을 위해 5겹 마호가니 및 로즈우드 넥을 사용합니다.

프렛보드 또는 핑거보드는 넥의 상판에 있으며 보통 넥에 접착되어 있는 별도의 나무판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용 프렛보드는 일반적으로 로즈우드 또는 에보니로 제작됩니다.

프렛이라고 하는 얇은 금속 조각이 12톤 스케일 위에 반응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박혀

있어 서로 다른 음이 나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기타 프렛보드에는 3번 프렛부터 홀수 프렛에 점이나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 11번와 13번에는 표시가 없고 대신 12번 프렛 또는 옥타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스톡은 넥에서 바디의 반대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튠너, 튠닝 페그 또는 헤드머신이라고도 하는 줄감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줄감개로 각 스트링의 장력을 조정하여 피치를 변경합니다. 너트는 헤드스톡이 넥과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플라스틱 또는 뼈로 된 작은 막대로, 여기 파여 있는 홈에 스트링을 끼워 프렛보드 위에 겁니다.

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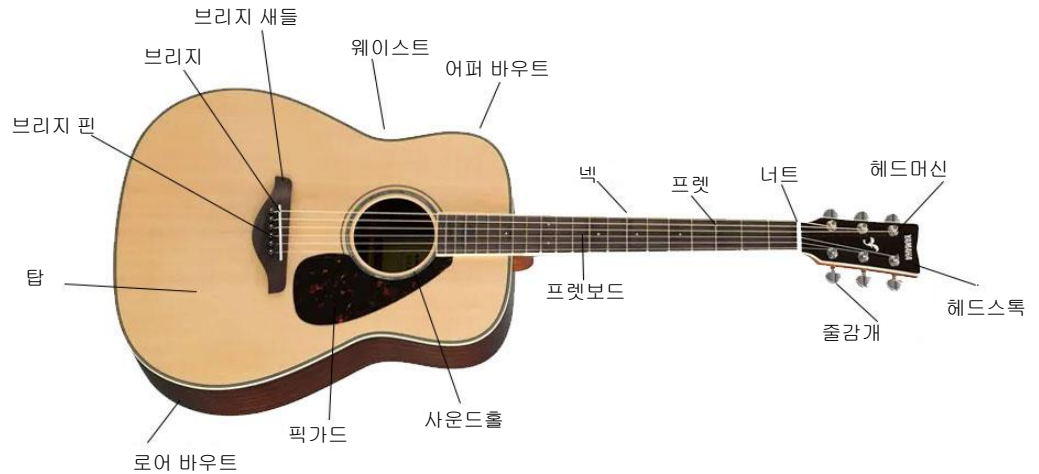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는 탑우드 또는 사운드보드라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운드보드 밑에는 이를 지지하는 내부 브레이싱이 있으며 측판과 후판에도 이를 넣어 기타를 빈 챔버로 만들어 기타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바디의 위쪽 곡선을 어퍼 바우트, 아래쪽 곡선은 로어 바우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쪽이 더 큼니다. 그 사이를 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바디의 크기와 모양은 악기의 소리와 연주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하려면 신체 및 음악적 요구에 맞는 바디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야마하는 다양한 바디 형태를 제작하지만 여기서는 [FG\(웨스턴 바디\)](#)와 [FS 레드 라벨](#)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FG 시리즈는 로어 바우트가 더 크고 웨이스트도 두꺼워 풍부하고 깊은 톤을 제공합니다. FS 바디 스타일은 그보다 작아 어린 연주자나 초보자가 다루기 쉬우며, 많은 전문 연주자들이 작은 바디로 구현하는 또렷하고 섬세한 톤을 선호합니다.

소리가 뻗어 나오도록, 즉 프로젝션을 시키는 부분인 사운드홀은 웨이스트와 일직선이 되는 프렛보드의 시작 부분에 있으며 종종 플라스틱 또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보호용 픽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기타의 스트링은 사운드홀 아래에 있는 브리지에 삽입됩니다. 그런 다음 브리지 핀을 사용하여 각 스트링을 고정합니다. 브리지에서 스트링을 띄우는 뼈 또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얇은 막대를 새들이라고 합니다. 브리지는 기타의 상판으로 스트링의 진동을 전달하여 악기의 소리가 뻗어 나오는 것, 즉 프로젝션을 돕는 부분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부위별 명칭



[야마하 FG830](#)

스타일 및 사운드

모든 어쿠스틱 기타는 동일한 기본 구조와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지만 사운드와 연주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나일론 대 스틸 스트링
- 바디 스타일
- 상판 - 사운드보드
- 넥 너비
- 톤우드

이러한 범주에 따라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지 이해하면 어쿠스틱 기타를 구매할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일론 대 스틸 스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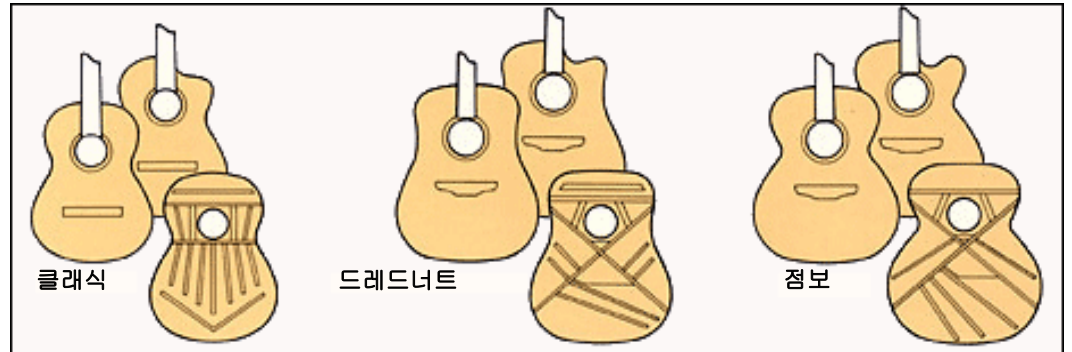
흔한 오해로, 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손가락이 안 아프거나 연주가 더 쉬운 나일론 스트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기타에서 나일론 스트링과 스틸 스트링을 번갈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 종류의 스트링으로 경험을 쌓고 다른 스트링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주하고 싶은 음악 장르와 원하는 톤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일론 스트링은 더 부드럽고 은은한 톤을 만들어냅니다. 클래식 및 플라멩코 스타일 기타 연주와 일부 포크 장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스틸 스트링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보통 록, 컨트리, CCM, 팝 유지션들이 사용합니다.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 기타는 더 크고 밝은 톤을 만들어 내는데, 흔히 이 소리를

전형적인 어쿠스틱 기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디 스타일



어쿠스틱 기타는 작은 여행용 사이즈와 친숙한 “드레드너트” 바디 형태부터 점보 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공됩니다. 바디 스타일에 따라 사운드 프로жек션과 톤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결정됩니다. 일부 어쿠스틱 기타 바디에 적용되는 단판 컷어웨이 디자인은 연주자가 상단 프렛으로 더 쉽게 팔을 뻗을 수 있도록 로어 바우트를 파낸 디자인을 말합니다.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스타일에는 많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니 및 여행용 기타

이 1/2 및 3/4 크기의 기타는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풀 사이즈 기타보다 작고, 볼륨과 울림이 덜 풍성하며 저렴합니다. 기타를 배우는 어린이에게 적합하며 여행용 기타로도 좋습니다. 종종 연주하기 쉬운 미니 기타로 돌아가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풀사이즈 악기 수준의 볼륨과 울림이 필요하지 않고 휴대하기 쉬운 악기를 원하는 경우 여행용 기타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야마하 JR 시리즈](#) 및 [APXT2 모델](#)은 소형 고급 기타로 풍성한 소리를 냅니다. 야마하는 또한 1/2 및 3/4 사이즈 클래식 기타를 제조합니다.

클래식 기타

스패니시 기타로도 알려져 있으며 클래식과 스페니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타는 스틸 스트링이 아닌 나일론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바디는 더 작지만 넥은 더 넓어 스트링 간격이 넓으므로 클래식 기타 주법인 핑거 피킹을 올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넥이 넓을수록 손이 작은 사람이 연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색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클래식 기타는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콘서트 기타보다 작고 미니 기타보다 큼니다.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인 [CG/CGX 시리즈](#)는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로 제공됩니다. [CG102 모델](#)은 초보자에게 완벽한 선택이며, 콘서트 수준 기타의 톤과 품질을 견비했으면서도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팔러

팔러 기타는 여행용 및 미니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스틸 스트링 기타입니다. 옛스러운 사이즈와 모양으로 전통적인 사운드나 독특한 사운드를 찾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에게 인기를 얻어 다시 유행했습니다.

팔러 기타는 일반적으로 기타의 넥이 12번 프렛에서 바디와 연결되는 12프렛 모델입니다. 야마하 [CSF 시리즈](#) 팔러 기타는 14번째 프렛에서 바디에 연결되며 솔리드 스프루스 상판, 더 풍부한 사운드를 위한 내부의 스칼럽드 브레이싱, 사운드 증폭 시에 사용되는 패시브 픽업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타와 함께 부드러운 깃백이 포함됩니다.

콘서트 기타

콘서트 바디 기타는 더 작고 약간 더 얇은 바디에 스틸 스트링을 끼운 6현 어쿠스틱 기타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바디가 더 작은 기타는 큰 드레드너트 바디에 비해 더 또렷하고 부드러운 톤을 만듭니다. 또한 앉아서 잡는 것이 더 쉬우며, 넥에 팔이 더 쉽게 닿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에게 이상적입니다. 야마하는 [A 시리즈](#)와 [FG/FS 레드 라벨](#) 및 [LS 시리즈](#) 등의 베스트셀러 모델을 포함하여 가격대와 기능 세트가 다양한 콘서트 바디 기타를 제조합니다.

드레드너트 또는 웨스턴 바디

드레드너트 또는 웨스턴 바디 모양은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유형의 어쿠스틱 기타로 큰 바디로 인해 깊고 강한 저음을 냅니다. 콘서트 바디보다 큰 드레드너트는 잡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체격이 작은 사람에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볼륨과 프로젝션의 특징으로 인해 드레드너트는 스트러밍과 플랫 피크를 선호하는 연주자에게 이상적이며, 핑거스타일 주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레드너트는 블루그래스와 컨트리 가스펠 연주에 적합합니다. 볼륨 최대치가 커서 세게 연주할 수 있으며, 즉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연주하는 경우, 드레드너트에서는 좋은 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마하 [FG/FS 레드 라벨 시리즈](#)는 드레드너트 형태를 취하되 바디의 두께를 줄이고 내부 브레이싱을 스칼럽 처리하여 더욱 풍부한 톤을 만들어 냅니다. [A 시리즈](#), [FG/FS 레드 라벨](#) 및 [LL 시리즈](#)는 숙련된 연주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원하는 모든 기능과 섬세함을 제공합니다.

정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기타는 가장 큰 기타 사이즈로, 매우 크고 강력한 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한 스트러밍 주법을 쓰는 연주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바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정보 기타는 기타리스트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마하는 베스트셀러인 [CPX 시리즈](#)와 같은 다양한 대형 바디의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를 생산합니다.

탑 - 사운드보드

사운드보드는 기타 바디의 상단 부분으로 브리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운드보드가 클수록 사운드가 더 깊고 커집니다. 기타 탑의 목재는 톤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스트링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브리지에 의해 상판으로 전달되어 증폭됩니다.

단판과 합판

어쿠스틱 기타 상판은 단판이나 합판으로 제작됩니다. 솔리드 상판은 보통 단판 2장으로 만들어지며 기타 상판 나뭇결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는데, 이를 북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야마하는 [FG](#) 및 [A 시리즈](#) 기타의 상판에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하고 [L 시리즈](#)에는 유러피언 앵겔만 스프루스를 사용합니다.

합판 상판은 여러 겹의 목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단에 고급 목재를 쓰고 그 아래에 여러 겹의 일반 목재를 대 함께 압축해 접착합니다.

합판은 단판 기타만큼 진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볼륨이 크더라도 소리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판은 첫 번째 어쿠스틱 기타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초보자에게 좋은 옵션입니다. 야마하의 [APX600](#) 및 [CPX600](#) 기타는 상판이 합판이지만 가능한 가장 풍부한 톤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넥 너비

기타 넥의 두께와 폭은 기타 바디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기타 사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 기타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또는 나일론 스트링 기타에 비해 넥이 더 좁습니다. 손이 작다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넥이 더 넓어 클래식 음악에 필요한 핑거링을 구사하기 더 쉽습니다.

톤우드

어쿠스틱 기타를 선택할 때, 목재의 종류에 따라 내는 톤이 다르므로 어떤 목재가 사용되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야마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타 제조업체는 기타에서 상판이

톤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루스는 상판에 사용되는 표준 목재로, 시트카 스프루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마호가니와 로즈우드도 기타의 후판과 측판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재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비용은 톤우드의 희귀성에 기반하여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특정 톤우드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기타 제조업체는 훌륭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기 위한 대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톤우드는 원하는 소리와 기타 연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핑거스타일 연주자는 섬세한 연주 스타일을 잘 반영해 주는 로즈우드를 선택합니다. 마호가니는 피킹이나 핑거링에 대한 반응이 약간 더 부드럽습니다.

전반적인 음색에 있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후판, 측판, 넥입니다. 브레이싱, 바인딩, 브리지 및 프렛보드에 사용되는 목재는 어쿠스틱 기타의 음색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제한하지만, 대개 악기의 전반적인 사운드를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목재 종은 기타의 톤 중 특정 측면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의 디자인, 장인의 기술과 사용된 각 개별 목재 부분의 품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결합하면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매우 특별한 기타 또는 악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마하는 목재 수집 및 선별, 재배 및 글로벌 책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목재, 그 사용 방법 및 알려진 음색의 특성에 대한 개요입니다.

시더: 시더는 부드러운 목재로 밝은 톤을 만들어냅니다. 반응이 빨라 경쾌한 주법을 사용하기에 좋으므로, 클래식 기타나 플라멩코 기타 상판에 흔히 사용됩니다. 측판과 후판에도 사용됩니다. 웨스턴 레드 시더는 균형 잡힌 따뜻한 사운드로 인기 있는 상판 목재입니다. 가벼운 연주 스타일에 어울리는 빠르고 풍부한 반응이 특징이기 때문에 특히 핑거스타일 연주자들이 선호합니다.

코코볼로: 코코볼로는 측판과 후판에 사용되는 열대 멕시코산 원목입니다. 반응이 좋고 빠르며 밝은 소리를 냅니다.

에보니: 에보니는 튼튼하고 매끈한 느낌으로 프렛보드 소재로 이상적입니다.

그라나딜로: 그라나딜로는 희귀한 목재로 로즈우드의 한 종류로 여겨지지만 밀도가 더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마림바 바에 사용되며, 어쿠스틱 기타의 측판과 후판에 사용하면 그와 비슷한 맑고 높게 울리는 톤을 냅니다.

코아: 코아는 톤에서 중음역대를 강조하는 독특한 골드 컬러의 하와이산 목재입니다. 이는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지만 희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고가의 기타에 사용됩니다.

마호가니: 마호가니는 밀도가 높은 목재로 반응이 느립니다. 마호가니는 상판 목재로 사용

시 튠에서 고음이 강조된 강한 소리를 냅니다. 이는 종종 컨트리 또는 블루스 연주에 어울립니다. 일부 스타일에서는 스냅을 추가하고, 중음 튠을 높이고, 저음을 줄이기 위해 측판과 후판에 더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벅과 브리지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메이플: 메이플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내부의 댐핑이 상판의 자연스러운 튠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종종 측판과 후판에 사용됩니다. 메이플은 튠에서 고음이 강조된 “드라이” 사운드를 만듭니다. 메이플은 울림이 적어 피드백이 적으면서도 다른 악기 소리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밴드로 구성된 라이브 환경에 적합합니다. 빅 리프, 슈가, 베어 클로와 같은 다양한 단풍나무 종들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내부 댐핑 정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투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 상판이 지닌 특징적인 튠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오방콰: 오방콰는 로즈우드와 비슷한 튠의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 목재입니다. 중음역대를 강조하고 균형 잡힌 튠을 내기 때문에 보통 후판과 측판에 사용됩니다. 오방콰의 튠은 마호가니나 코아의 발랄한 중음역대와 함께 로즈우드의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로즈우드: 브라질산 로즈우드 공급이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인도산 로즈우드로 대체되었습니다. 두 목재는 다르게 보이지만, 튠 성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쿠스틱 기타에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고 전통적인 목재 중 하나인 로즈우드는 저음이 많은 리프에서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풍부하고 복잡한 오버톤으로 유명합니다. 날카로운 어택과 높게 울리는 튠으로 매우 또렷한 소리와 풍부한 발성을 제공합니다. 로즈우드는 빠른 반응 속도와 광범위한 음역대의 오버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단단함과 밀도의 복잡한 무늬,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색상이 특징입니다. 강력한 중음역대 및 고주파는 고음역에서도 풍부한 튠을 제공합니다. 로즈우드는 핑거보드와 브리지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사펠레: 사펠레는 또 다른 지속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목재로, 중음역대를 강화하고 울림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측판과 후판에 사용됩니다. 튠은 마호가니와 비슷하지만 사펠레는 조금 더 고음부가 강조됩니다.

스프루스: 스프루스는 표준적인 상판의 소재이며, 시트카(Sitka)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입니다. 높은 강성과 대부분 연목의 가벼운 특성이 결합된 스프루스는 빠른 속도의 사운드에 적합합니다. 시트카 스프루스는 또한 힘차게 연주할 때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확한 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카 외에도 엔겔만(Engelmann), 애디론덱(Adirondack), 유러피언 스프루스(European Spruce)와 같이 기타 상판에 사용되는 많은 종의 스프루스가 있습니다. 각기 미묘하게 구별되는 음색의 특징과 나무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넛: 월넛은 바디에 마호가니의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월넛은 튠에서 중음역대를 강조하며 상판 목재의 튠이 더 잘 프로젝션되도록 합니다. 코아와 밀도와 강성이 비슷하고 밝은 고음 튠도 비슷합니다. 저음 튠은 더 깊게 시작되지만, 소리가 울린 후 풍성해집니다.

어쿠스틱 기타에 대해 알아봐야 할 다른 사항

인토네이션: 인토네이션은 넥 위로 지판을 짚을 때 맞는 음이 연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fret 사이의 음 간격(보통 12번 fret 위)이 맞지 않으면 기타는 맞는 음으로 연주할 수 없으므로 레코딩이나 공연용 악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튜닝 머신: 기타의 튜닝 머신으로 악기를 섬세하게 튜닝하고 피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튜닝 머신의 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밀폐형 헤드머신은 녹과 공기 중 부식에 강하므로 개방형 헤드머신처럼 유지보수나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리지 및 핑거보드: 브리지와 핑거보드에 사용되는 소재는 소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브리지와 핑거보드 소재의 영향이 기타의 톤을 만들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재는 로즈우드와 월넛입니다.

마감: 다양한 유형의 마감이 목재가 진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주자가 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타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업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쿠스틱과 어쿠스틱 일렉트릭 중 어느 것을 구매해야 하는가?

많은 어쿠스틱 기타에는 어쿠스틱 사운드로 공간을 채워야 할 때 PA 또는 앰프에 연결할 수 있는 픽업 및 프리앰프가 함께 제공됩니다. 악기에 따라 측면에 구멍을 내어 프리앰프를 장착한 경우도 있고, 사운드를 내부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프리앰프, 마이크, 피에조 픽업, EQ 및 튜너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아마하는 온보드, 내장형 리버브와 코러스 사운드 이펙트를 갖추었으며 수상 경력에 빛나는 [트랜스어쿠스틱](#) 기타를 포함하여 오늘날 기타 업계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를 만듭니다.

어쿠스틱과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중요한 결정이며, 실제로 이를 좌우하는 것은 악기 사용 계획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에 일부 유형의 전자 “픽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앰프나 PA 시스템에 연결하여 어쿠스틱 사운드를 재현해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기타에는 사운드보드의 진동을 전자 신호로 변환하는 픽업 시스템이 바디 내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약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는 프리앰프를 사용하여 신호를 강화합니다. 아마하 [에트모스필 시스템\(Atmosfeel System\)](#)은 세 가지 다른 변환기를 사용하여 어쿠스틱 기타의 톤을 재현합니다.

프리앰프는 일반적으로 연주 시에 위쪽이 되는 기타 측면에 위치하며, 주로 볼륨 및 톤 컨트롤이 있고 내장 크로매틱 튜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장된 픽업 및 프리앰프를 사용하면 연주 중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풍부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기타를 앰프 또는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는 다른 어쿠스틱 기타 같이 연주하고 그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라이브 음악을 연주할 계획이 없더라도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 선택 시 따라오는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뮤지션들은 레코딩에서 기타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애용합니다.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도 곡 아이디어를 빠르고 쉽게 녹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녹음은 녹음 시 주변 실내 소음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합니다.

이미 전자 장치가 장착된 기타를 구매하는 것이 어쿠스틱 기타를 구입한 후 픽업/프리앰프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연주를 할 때마다 기타에 잭을 꽂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앰프로 출력하기 위해 잭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2현 기타

12현 기타는 표준 기타를 변형한 방식으로, 포크와 블루스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연주자가 흔히 사용합니다. 이 기타는 각각 2줄씩 6쌍의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벨소리나 코러스가 붙는 효과가 나도록 튜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음부 쌍은 옥타브 차이를 두고 튜닝하고 고음부 쌍은 동일한 음으로 튜닝합니다. 기타리스트에 따라 3번 쌍(G스트링)의 두 줄 모두 같은 음으로 튜닝하는 경우도 있고, 벨소리처럼 들리도록 한 줄은 한 옥타브 높게 튜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12현 모델을 컬렉션에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아마하 [FG820-12](#)를 추천합니다.

개인의 취향

어쿠스틱 기타를 구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연주 방식에 잘 호응해 오는 기타를 선택해야 하며, 기타의 느낌과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좋은” 기타라고 하더라도 그 기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준비를 잘 해 두고 기대치를 정한 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타를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예상해 두고, 어쿠스틱 기타의 작동 방식과 다양한 목재 및 구성 요소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기능이나 가격표에 관계없이 자신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기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즐겨 연주할 수 있는 기타일 것입니다.

아마하 어쿠스틱 및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의 라인업을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야마하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 문의처 페이지 www.yamahaworship.com을 방문하십시오. 어떤 문의든 환영합니다.

용어집

아발론: 아발론은 fretboard 및 헤드스톡 인레이와 같이 어쿠스틱 기타 무늬나 장식을 넣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바다 달팽이 껍질로 된 단단한 상감입니다.

액션: 어쿠스틱 기타에서 fret과 string 사이의 거리.

어택: string을 튕겼을 때 나는 첫 소리로 묵음과 최대 볼륨 사이.

바인딩: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 넥 및/또는 헤드스톡의 디자인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르는 목재, 플라스틱 또는 기타 소재의 얇은 띠.

볼트온 넥: 볼트로 바디에 부착된 기타 넥.

복매칭: 어쿠스틱 기타의 후판이나 상판에 들어가는 나무판 두 개의 무늬를 맞추는 공정. 일반적으로 판재 한가운데를 자른 뒤, 악기 중심부에서 두 판을 이어 붙입니다.

바우트: 어쿠스틱 기타의 좁은 웨이스트 위아래의 둥근 부분을 바우트라고 합니다. 웨이스트 위는 어퍼 바우트, 아래는 로어 바우트라고 합니다.

브레이싱: 어쿠스틱 기타 내부의 목재 지지 구조로, 악기에 일체감을 제공합니다. 잘 설계된 탑 브레이싱은 상판의 진동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브리지: 대부분의 어쿠스틱 기타에서 string을 고정하고 진동을 사운드보드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목재 부품으로 사운드를 아래쪽에 있습니다.

브리지 핀: 브리지 핀은 브리지 홀에 끼우고 여기에 string을 넣어 고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에보니로 만들기도 합니다.

카포: 어쿠스틱 기타의 전체 피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장치. 카포는 선택한 fret에서 넥에 장착되어 모든 string을 눌러줍니다. 이를 활용하면 코드를 그대로 잡으면서도 키를 다양하게 바꿔 연주할 수 있습니다.

컷어웨이: 연주자가 기타의 상단 fret으로 더 쉽게 팔을 뻗을 수 있도록 어퍼 바우트 한쪽을 파낸 기타 바디 스타일.

디케이: 음이 최대 볼륨에서 무음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볼륨이 감소하는 정도.

도브테일: 기타 제조 방식 중 하나로 연결 부위끼리 맞물리는 방식이며, 넥을 바디에 부착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드레드너트: 대형 바디의 어쿠스틱 기타로, 20세기 초 Martin 기타 회사에서 최초로

디자인한 방식입니다. 당시의 대형 드레드너트 전함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피겨링: 목재가 지닌 자연적인 나뭇결 패턴.

핑거보드(프렛보드라고도 함): 기타 넥에서 연주에 쓰이는 표면을 핑거보드 또는 프렛보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넥에 접착된 얇은 나무판으로, 그 위에는 프렛이라는 얇은 금속 조각이 반음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감: 어쿠스틱 기타 목재에 도포하는 최종 코팅.

플레이밍: 빛이 다른 각도에서 비출 때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목재의 외관 특성 - 피겨링을 참조하십시오.

프렛: 반음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프렛보드 위에 배치된 얇은 금속 조각.

프렛 마커: 어쿠스틱 기타의 프렛보드 인레이로, 이를 시각적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자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각백: 가볍고 부드럽고 패드가 덧대어진 케이스로 하드셀 케이스보다 편리하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어쿠스틱 기타 운반 장비입니다.

헤드스톡: 기타 넥의 최상단 부분으로, 줄감개가 있습니다.

힐: 넥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바디에 부착하기 위해 넓게 만듭니다.

인레이: 순수한 미적 목적을 위한 프렛보드, 헤드스톡 또는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디자인. 일반적으로 인레이 디자인은 목재 위에 부조 후 자개, 금속, 아발론 또는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 중 하나로 채웁니다.

인토네이션: 프렛보드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톤 간의 관계. 각 스트링 12번 프렛의 음은 동일한 스트링의 12번 프렛의 한 옥타브 높은 음과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인토네이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합판: 어쿠스틱 기타 제조에서 사용되는 소재인 합판은 단판과 반대로 여러 겹의 얇은 판재를 붙여 만듭니다.

루시어: 현악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

마블링: 종종 에보니의 자연스러운 패턴과 색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개: 특정 연체동물 껍데기에서 얻은 소재로 내부를 채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레이나 기타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머스태시 브리지: 팔자 콧수염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브리지.

넥 조인트: 어쿠스틱 기타의 넥이 바디에 연결되는 지점.

너트: 프렛보드 위쪽에 위치한 너트는 스트링이 튜너 쪽으로 고른 간격으로 걸리도록 하고 기타의 넥에 진동을 전달합니다.

펠로이드: 자개의 합성 소재 대체품.

피크(플렉트럼이라고도 함):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링을 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얇은 플라스틱 조각.

픽가드: 사운드홀 아래에 위치한 얇은 판으로, 기타의 스트링을 튕기거나 쓸며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부터 기타의 상판을 보호합니다.

픽업: 스트링의 진동을 감지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증폭하는 전자 장치.

피에조 픽업: 스트링이 진동하여 변화를 감지하고 압축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결정 구조(주로 어쿠스틱 기타의 새들 아래에 배치됨). 어쿠스틱-일렉트릭 기타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픽업입니다.

퀄티드: 물결 모양이나 접힌 모양을 연출하는 특정 톤우드의 시각적 특성, **피겨링**을 참조하십시오.

로제트: 어쿠스틱 기타의 사운드홀 주변의 장식용 상감.

새들(브리지 너트라고도 함): 너트와 마찬가지로 새들은 브리지에서 스트링을 띄우고 브리지와 함께 스트링의 진동을 상판으로 전달합니다.

스케일 길이: 스트링의 진동 부분의 총 길이.

세트 넥: 바디에 접착시키는 방식의 어쿠스틱 기타 넥.

사운드보드(상판이라고도 함): 어쿠스틱 기타의 톤과 프로젝션을 담당하는 어쿠스틱 기타의 전면에 있는 나무판.

사운드홀: 악기 소리가 뻗어 나오도록 돕는 어쿠스틱 기타 상판의 구멍.

트러스 로드: 내부에 넣는 얇은 막대로 일반적으로 금속이며 넥 전체를 관통합니다. 사용하는 스트링의 장력에 맞게 넥의 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웨이스트: 어쿠스틱 기타 바디의 가장 좁은 부분.